

반대생활은 죽지 않는 방법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짓밟으로 고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고통을 피하면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통이 올 때에 고소하게 생각하며 더 고통을 가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실 수밖에 없는 때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더욱 강해지므로 반대생활이 피가 바뀌고 영생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가 썩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썩지 않는 생각의 방법을 이 사람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반대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반대생활을 하러 나가 반대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반대생각을 해야 피가 바뀌는 다. 피가 바뀌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힘들면 고소하게 생각하라

인간의 생각은 힘들면 힘들지 않는 방법으로 살려고 생각을 하죠? 그러한 인간의 생각은 피가 썩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힘들지 않는 방법만 찾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짓밟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짓밟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사람은 밑에서 연단 받음 때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더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가 지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고로 쉬게 되었는데 쉬는 그 자체가 피를 계속해서 썩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들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하다가 너무 힘들니까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고 쉬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안 쉬었다고 했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니가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고로 지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정신을 잃었

구나 생각을 하니가 한참 동안 쉬었다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겠죠? 근데 바로 또 일을 했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은 극한의 반대 생활을 일관해서 결국은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쉬고 싶은 생각이 나면 쉬지 않았고 몸이 힘들고 말할 수 없이 견딜 수가 없으면 계속해서 몸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고통은 짓밟이므로 피하게 되면 죽는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반대생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터득했냐 하면 「사람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은 짓밟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어쨌든 짓밟으로 고통이 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올 때에 더 고통을 가했고, 참을 수 없을 때에 쉬려고 하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째서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을 하십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라고 희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래요. 재미가 있어서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마귀를 속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힘든데 쉬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기왕 짓밟으로 당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몇 년 징역이라고 선고한 다음에 징역을 다 산 다음에 석방시켜 주죠? 세상 이치와 똑같습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때에 그때에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짓밟으로 당하는 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몇 년 징역이라고 선고한 다음에 징역을 다 산 다음에 석방시켜 주죠? 세상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마귀를 못 이기면 죽는다

사람은 짓밟으로 발을 받아야 하기 때

문에 이 사람은 밑에서 참을 수가 없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가해져 왔을 때 더욱 더 고통을 가했습니다. 더 힘든 일을 가하게 되니까 결국은 더 힘든 일 하면 또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이치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해보니까 더 힘들게 일을 하니가 정신을 잃는 게 아니고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아주 확실하게 힘이 뻗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이겨야 내가 사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못 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대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하기가 싫으면 일을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더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 마귀를 이기는 거지 고통스럽다고 해서 쉬어가면서 한다면 맨날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피가 폭폭 썩습니다.

인간 세상에 순리대로 순응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생활을 해야 사람의 피가 죽지 않는 영생의 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이 사람은 터득을 한 것입니다. 밑에서 연단받으면서 이 사람의 주체영이 마귀영이라는 것을 터득했고 그 다음에는 이 마귀영을 이기려면 반대생활을 해야지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 순응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피는 계속 썩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반대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되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렇게 반대생활을 하게 되니까 50살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쌀 3가마니 4가마니 무게의 시멘트를 짊어지고 뛰었습니다. 그 시멘트 8포를 짊어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마른 땅이 썩 들어가요. 이 사람이 땀 때마다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그 굳은 땅이 썩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9살, 18살 때 시골에서 쌀 27가마니를 짰습니다. 지금도 쌀 27가마니 지면 장사입니다. 그런데 쌀 4가마니 무게를 짊어지고 뛰었다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더 기운이 세다는 것입

니다. 피가 바뀌어지니까 힘이 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큰 바위를 짊어지고 밑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산의 땅은 바위를 짊어지고 밭을 옮길 적마다 썩 들어가는 고로 그 다리를 빨리하면 힘들지 않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 그 밭을 한 발 한 발 빼가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반대생활을 하니가 소변으로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가고 대변으로도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가면서 완전히 피가 바뀐 것입니다.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니까 기운도 뻗치고 힘이 장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터득한 것은 반대생활을 해야 이긴자가 되고 이긴자가 되면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반대생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승리제단 나오면서 반대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제단 식구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해서 피하고 쉬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회생적인 생활을 받 먹듯 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찾아서 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늘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밑에서 연단 받음 5, 6명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하나같이 요령만 꾸리고 하나같이 반대생활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못 가르쳐주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기(天機)에 해당되는 말인 고로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3년 1월 19일 말씀 중에서

2015년 이슬성신절 행사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자 박철수 승사

군복패션으로 성도님들께 웃음을 선사한 정영만 승사의 군가

여청연합의 합창과 율동, 성도님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진해제단의 콩트, 새로운 장르의 개척에 박수 보냅니다

부산제단 마산제단의 합동합창, 의의의 율동을 보여 주어 멋있었습니다

좌/ 대구제단의 라준경 책임승사와 이정철 부인회장의 민요 타령

우/ 무궁화합창단과 무궁화관현악단의 협연

성도님들의 관람하시는 모습